

# “공동육아 제도적 지원을”... 서울시민 제안 공론화된다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공감 수 많은 청원 중 의제로 선정 법적 보호, 사회적 인정 등 요청

최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공감 100건을 넘은 청원 15개 가운데 1건이 토론 의제로 선정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민주주의 서울에서 100공감을 돌파한 시민 제안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육아 단체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지원해달라는 청원이 시민토론 의제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0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에 따른 것으로 전체 15개 제안 가운데 ‘공동육아 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 관련 내용 1건이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민 이모 씨는 초등 돌봄 공동체인 ‘공동육아 초등방과후’가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시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제선정단은 “제안의 핵심은 공동육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이다”면서 “복지 영역에서 행정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주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키움센터가 설치되더라도 모든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키움센터로 다 흡수하거나 통일하는 형태보다는 민관 병행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계 구축과 역할 분담에 관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제선정단은 지난 7월 등록된 시민 제안 중 100명 이상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공감한 ▲양천소각장 폐쇄 ▲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 철회 ▲서울시 쿼어문화축제 반대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위례신사선 아파트단지 내 도로 지하 관통 반대 ▲태릉골프장 시민 개방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조정 ▲강남 대모산에 풍석 스마트 공원 조성 등 나머지 14개 요청 사항은 시민토론 안건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제선정단은 양천소각장 폐쇄 청원의 경우 특정 시설물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면 갈등이 격화되거나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공공성과 사적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은 갈등조정이 쉽지 않아 공론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쿼어문화축제 반대 문제는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접수된 바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장 사용신고 자체를 받고 있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릉골프장을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김모 씨는 “천혜의 녹지! 군장성만 누리지 말고 우리도 같이 누리자. 태릉골프장 오픈해서 ‘노원테라파크’를 만들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의제선정단은 그린벨트 유지와 확장,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의 여지는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공론화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시정 참여 창구다. 시민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의제선정단 검토를 거쳐 시민토론 안건으로 상정된다. 시민과 서울시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의 실행 결과는 민주주의 서울에 공개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모든 공공건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연령·성별·장애 제약 없도록 설계 통합 건축 TF 가동... 단계별 이행

내년부터 신축 또는 증축되는 서울의 공공건물과 시설물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D·범용 디자인)으로 설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해 단계별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성별·장애·국적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디자인 개념이다. 계단이나 턱 없이 평탄한 공원 접근로나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지하철 안내 표시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민간에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건축물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화하기 위



성동구보건소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여담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서울시

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기획·설계부터 준공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건축 관련 부서를 모아 ‘통합 건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0년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현장 여건에 맞게 다듬는 작업도 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인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조성된다. 2022년부터는 ‘유니버설 디자인 중재’를 도입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서 누구나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하는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공평한 참여와 누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코로나19 사투 의료진에 심리상담 지원

서울시는 고강도노동과 정신적 피로에 시달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간호사와 의사, 병동 근무자 등 코로나19 의료진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예약하면 전문가가 상담을 해준다.

필요한 경우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방역 인력의 69.7%가 업무와 관련해 울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번아웃(탈진·소진)의 3대 요소인 ‘감정적 고갈’, ‘병소’, ‘효능감 저하’ 모두 기준값 이상인 인력이 전체의 33.8%였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공공연계 청년 인턴십 200명 모집

서울시는 ‘공공연계 청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IT·인공지능, 화학, 바이오, 먹거리 창업, 디자인, 정책홍보, 관리메니저 7개 분야의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3개월간 모집 분야별 중·소·창업기업에서 업무보

조, 서울혁신산업 및 청년지원정책 홍보, 청년인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무장소는 70여곳의 중소혁신기업 및 서울시 일자리 사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도 병행된다. 청년희망일자리 공공연계 중소혁신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24년 만에 전면 개통

신설동~하남BRT센터까지 연결

서울시는 오는 11일 오전 4시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전면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공사가 완료돼 천호대교남단~강동역 1.2km 구간의 BRT 연결을 끝으로 천호대로 15.8km 전 구간에 BRT가 깔린 데 따른 것이다.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BRT 개통, 중

양차로 버스정류소 신설, 가로변 정류소 신설,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천호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과 보행자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버스 노선별 정류소는 대폭 변경된다.

서울시는 BRT 설치로 인해 일반차량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천호사거리에 운영 중이던 유턴 차로를 양방향 모두 유지키로 했다.

천호대로 전체 구간 BRT 설치

는 24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신답역교차로~아차산역사거리 4.5km 구간은 서울에서 가장 이른 1996년에 BRT가 설치됐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하남시 하남BRT환승센터부터 서울 신설동오거리까지 약 21km의 BRT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종로 BRT를 포함해 13개 도로축, 124.2km에 BRT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7 | 해질 / 18:52

9월 7일 (월) / 음력 : 7월 20일

수도권 날씨 / 23 ~ 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예보: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